1956. 3

김 일성 원수의 생가

김 일성 원수께서는 1912년 4월 15일 평안 남도 대동군 룡산면 하리(칠골) 에서 탄생하시였다.

지금도 생가가 보존되여 있는 칠골은 본가가 있는 만경대와 함께 유서 깊은 력사를 지니고 있다.

사진은 국립 중앙 해방 투쟁 박물관 김 일성 원수 항일 빨찌산 투쟁실에 있는 김 일성 원수의 생가 모형

김일성 원수의 어린 시절

—한 설야 작 《만경대》에서—

원수의 나이는 아직 어렸지만 지각은 벌써 어른 생각을 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더욱 아버님이 왜놈에게 붙들려 갔다는 사실이 원수의 머리를 강하게 자극하였습니다.

원수는 때로 혼자서 대동강'가를 거니는 일이 있었습니다.

원수는 어쩐지 낚시질 구경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낚시질'군 뒤에 가서 두 무릎에 손을 짚고 가만히 서서 들여다 보았습니다.

어떤 낚시질'군은 낚시'대들을 두세개씩 가지런히 벌려 놓고 있었습니다.

고기가 걸려 올라오는 때는 낚시질'군은 물론이지만 원수도 기뻤습니다. 더욱 굵은 놈이 꼬리를 툭툭 치면서 은빛 비늘을 번뜩이고 올라오는 광경은 실없이 장쾌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큰 놈은 좀체 물우로 끌려 올라오지 않고 낚시를 문 채 곁으로 삐여져 달아나는 것이 물'살로써 알려졌습니다. 이런 놈은 낚시질'군도 단박에 조급히 채쳐 올리지 않고 낚시'줄을 이리 저리 놀려 가며 고기가 맥 빠지기를 기다려 가지고 서서히 끌어 올렸습니다.

원수는 그것이 재미나서 자기도 긴 회초리 끝에 줄을 매여 가지고 낚시질을 해 보았습니다. 낚시질'군들에게서 낚시도 얻고 미끼 꿰는 방법도 배우고 했으나 하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백당놈의 고기》.

화가 나서 고기를 탓해 보았

습니다. 그런즉 한 낚시질'군이 말했습니다.

《고기가 사람을 알아》.

그러나 원수는 고기가 아이 어른을 알아 볼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라고 낚시질을 못하라는 법도 없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남 못 하는 일도 할 수 있는데 남 하는 일을 못할 까닭이 있느냐고 생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종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낚시질'군들이 낚는 것을 좀 더 눈여겨 보았습니다. 그래도 묘리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늙은 낚시질'군이 큰 고기를 걸었다가 놓친 일이 있었습니다.

거의거의 수면에까지 끌려 나오던 놈이 어떻게 했는지 낚시를 뱉어 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때 고기가 수면을 쩍 가르며 도망치는 것으로 보아 매우 큰 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늙은 낚시질'군은 조금도 아수해하는 빛이 없이 낚시에 감자 미끼를 꿰 가지고 다시 그 부근 그늘진 수면에 던졌습니다. 그리자 얼마 뒤에 파연 다시 큰 놈이 걸렸습니다.

처음 채쳤을 때 마치 무슨 나무 등걸에 걸린 것처럼 턱 맞서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큰 놈이 걸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늙은 낚시질'군은 아주 침착히 그러나 낚시'줄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이리저리 처으며 그 놈을 낚아 올렸습니다. 정말 큰 놈이였습니다.

《야 아까 그 놈이로구나!》.

원수가 제사 기뻐서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렇다고 낚시질'군의 재주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늙은 낚시질'군은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놈이 아니야. 아까 그놈의 짝이야》.

《아니 그걸 어떻게 압니까?》.

곁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큰 놈은 결코 혼자 다니지 않아, 그러니 아까 그 놈은 놀라서 달아났지만 함께 왔던 놈이 아직 켜를 모르고 그대로 있었던 거야》.

늙은 낚시질'군은 물 밑을 들여다 본 듯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하 그래서요?》.

《고기도 큰 놈은 지각이 있어. 미련한 낚시질'군보다 낫단 말이야, 그러니 아무에게나 물리겠나》.

모두 흥미 있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원수도 어쩐지 늙은 낚시질'군의 말에 귀가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고기도 아무 낚시에나 마구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큰 고기는 양지 바른 데로는 다니지 않아, 그늘진데로 그도 깊은 물 밑으로 다니거든…저것 보라구, 저기에 지금 그늘이 들지 않았어》

하고 늙은 낚시질'군은 지금 낚시를 던졌던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윽고 앉았던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그럼 또 큰 놈을 잡아 내라요》.

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때 늙은 낚시질'군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까 그놈이 도망가서 한참은 큰 놈들이 오지 않을 거야, 고기가 오지 않는 때는 고기를 따라 가야지, 범의 굴에 가야 범을 잡지 않나?》.

그리고 늙은 낚시질'군은 저만침에 가서 막 그늘이 들기 시작한 수면에 재로 낚시'대를 던졌습니다.

원수는 나이가 비록 어렸으나 그 말이 어쩐지 심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낚시질'군이 고기 잡아 내듯 아버지를 붙들어간 왜놈들을 어떻게 그렇게 묘하게 잡아 치울 수 없을가고 생각했습니다.

그 놈들은 사뭇 극악한 놈들이라 능난한 낚시질'군이 고기 잡듯 아주 깜쪽 같이 돌려 빼야 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련한 낚시질'군처럼 마구잡이로 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원수는 그 뒤로부터 편쌈할 때든지 또는 무슨 유희를 놀 때 같은 때도 늘 그 늙은 낚시질'군의 말을 생각했습니다.

무슨 더 좋은 생각이 없을가, 더 빼여진 방법이 없을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 마을 아이들은 도둑잡기 놀음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이름이 도둑 잡기지 실상은 왜놈잡기 내기였습니다.

약속을 어긴다든가 동무를 때린 아이가 늘 도둑(왜놈)으로 돌리였습니다.

그러나 놀음이 끝나면 그 아이의 지나간 잘못은 탕감되였고, 뿐 아니라 미운 왜놈이 되여 준 것을 고맙게 치사해서 그 아이가 다시 놀음에 섞이기를

꺼리지 않도록 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남의 집 실과를 두드려 먹은 아이가 도둑(왜놈)이 되였습니다. 이 때부터

《왜놈이라야 남의 것을 훔쳐 먹는다》는 것이 아이들의 상식으로 되였습니다.

그 담은 범의 놀음도 했습니다.

이것은 늑대나 이리 같은 나쁜 짐승이 못된 짓하고 다니던 끝에 범에게 물려 죽는 놀음이였습니다.

이 때는 범은 제일 세고 제일 좋은 것으로 되였습니다.

이것이 차차 번져서 어린이들의 간단한 연극으로 변했습니다.

한 실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였습니다.

아주 욕심 사나운 도둑이 있었습니다. 이 도둑은 무엇이든지 다 집어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첨하는 놈이 생깁니다. 이 아첨'군들은 남의 것을 훔쳐다가 도둑에게 줍니다. 그래서 도둑의 괴수는 점점 배가 불러집니다.

그래 도둑은 배가 너무 불러서 걸어 다니지 못하고 사람들을 말처럼 엎디게 한 다음 그 등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한번은 말이 된 사람들이 약속하고 불의에 몸을 빼치는 바람에 도둑은 공중걸이로 떨어져서 배가 터져 죽습니다.

이것들은 만세 운동 뒤에 일어난 재 놀음이였습니다.

이곳은 흥남 비료 공장입니다.

지금 이 공장의 로동자들은 로동당 제3차 전당 대회를 맞이하면서 한 가마니라도 더 많은 비료를 농촌으로 보내기 위하여 눈부시게 일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요. 눈 같이 흰 비료가 산처럼 쌓여졌습니다. 이것을 비료산이라고 부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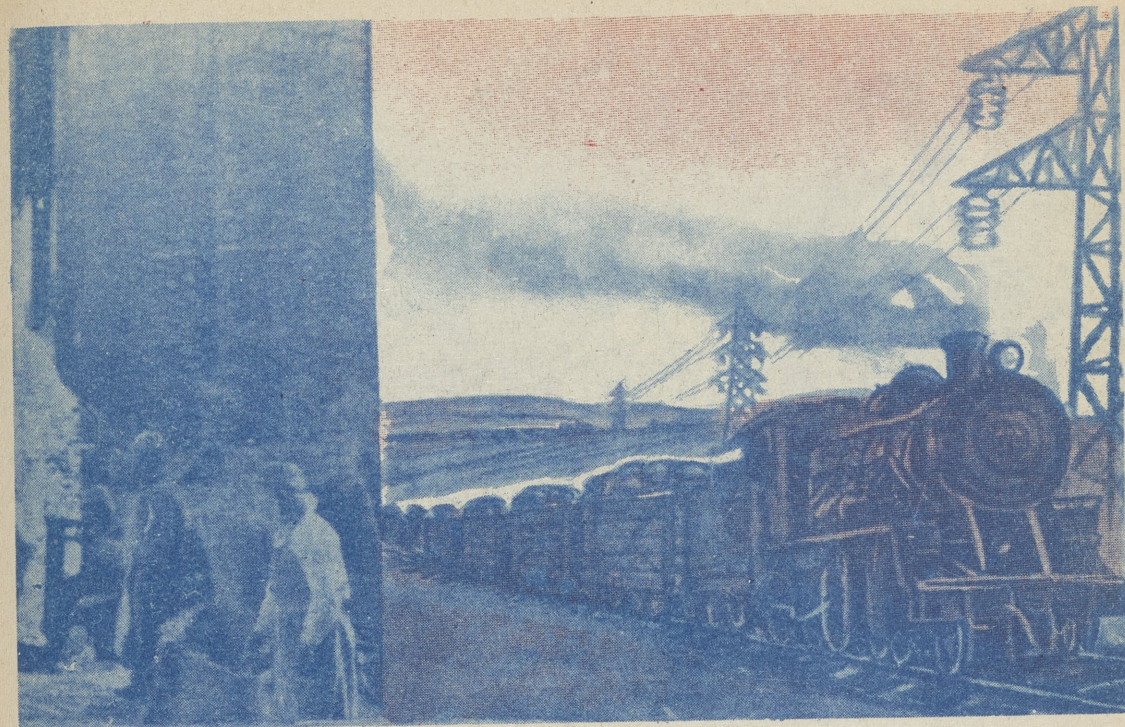
천정에 달린 유리창으로 아침 해'살이 비쳐 들자 비료산은 더욱 눈부시게 빛납니다.

지금 이곳에서 일하는 하조공(비료를 가마니에 넣어 묶는 로동자) 아저씨, 형님, 누나들은 쉼 없이 비료산을 허물어 가마니에 퍼 넣습니다.

줄창 허물고 실어 날라도 하루밤을 새면 또 산 같이 쌓이는 비료산, 이 비료산을 허물기 위하여 번쩍이는 삽날과 곡괭이들, 날래게 묶어 쌓는 비료 가마니.

영차! 영차! 비료 가마니를 져 나르는 바쁜 걸음들, 눈에 보이고 움직이는 것, 여기에서는 모두가 농촌에 더많은 비료를 보내기 위해 움직이며 달리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 비료산에서 일하시며 로동당원의 영예를 떨쳐 온 강 영선 아저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비료산) 우리 로동자들이 우리 나라 농민들에게 보내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우리들은 로동당 제3차 전당 대회를

맞이하면서 농민들에게 더 많은 비료를 보내기 위하여 금년도 10만톤 계획을 두달 앞당겨 10월까지 끝낼 것을 맹세 하였습니다》.

이 맹세는 훌륭하게 실천되여 가고 있습니다. 바로 하조장 안에 걸린 속보판 우에는 어제 계획을 133%로 넘쳐 끝낸 자랑스러운 도표가 붉은 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어느듯 이 아침의 첫 기관차가 비료 가마니를 칸칸마다 실었습니다. 이윽고 푸른 기'발이 휘날리자 기관차는 우렁찬 기적을 울리며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기적 소리가 울릴 때마다 이곳 로동자들은 자기들의 로동에 대하여 더욱 기쁘고 영예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료가 한시라도 바삐 농촌에 닿는다면 농민들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어느 누구에게 물어도 모두 이 한가지 대답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저 기관차는 로동자 아저씨들이 농촌에 보내는 따뜻한 손'길과 귀중한 선물을 싣고 달리는 것입니다.

바로 저 기관차가 차량들을 튼튼히 잇고 달리는 것처럼 우리 나라의 로동자들은 농민들과 굳게 손목을 잡고 우리 나라를 하루 속히 평화적으로 통일시키며 이 땅에 행복한 살림을 꽃피우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첫 행군

—개성 중학교 (인민반) 대에서—

정 렬

봄을 즐기는 소년단원들의 행군 대렬은 버드나무 늘어선 선죽교를 지나 원통사로 떠났습니다.

《애들아 저 유리창 좀 봐…》아침 해'살을 담북 받아 멀리 눈부시게 반짝이는 직물 공장을 가리키며 선숙 동무가 소리쳤습니다.

잘칵잘칵 천짜는 기계 소리가 마치 수많은 그 유리창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로동자들은 우리들이 즐겁게 행군을 하고 있을 때도 우리들의 옷감을 만들기 위해 저렇게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답니다》하고 선생님은 발'걸을 옮기면서 로동자들의 행복한 생활과 새로 지은 직물 공장에 대하여 이야기하셨지요. 어느덧 행군 대렬은 비들기 성재를 넘었습니다. 멀리 바라보면 아지랑이가 춤추고 뭇새들이 하늘 높이 날아 올랐습니다. 골짜기로 들어가면 갈수록 길은 험하고 경치는 아름다웠지요.

양지쪽에 있는 진달래는 방금 피여날듯이 붉은 몽우리를 짓고 있었습니다.

《휴식!》. 선생님의 구령과 함께 행군 대렬은 서사정에서 쉬여 가게 되였습니다.

오관산에서 흐르는 시내는 바위를 감돌아 동남으로 흐르다가 극락봉 밑에서 맑은 못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못을 두고 화담이라고 부른답니다.

《낚시질을 했으면 좋겠네》물속에서 꼬리를 치며 놀고 있는 고기들을 들여다 보며 누가 이렇게 말하자 선생님은 웃으시며 《서 경덕 선생이 바로 여기에서 낚시질을 즐겨 했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년단원들은 못가에 있는 큰 바위에 자리 잡고 앉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수첩에 적어 넣었습니다.

—서 경덕 선생은 1500년대의 애국적인 학자입니다.

송경(개성)에서 출생한 선생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 자라났지요.

그는 어려서부터 먹는 것, 잠자는 것을 잊고 매일 꿇어 앉아 글을 읽었으나 벼슬하기를 원하지 않았답니다.

그리하여 선생은 바로 이 화담에서 자연을 즐기며 공부를 했지요—

선생님의 이야기가 끝나자 행군은 다시 계속되였습니다.

아직 원통사까지는 10리를 잘 가야 했지요.

《저 봉우리를 넘으면 원통사가 보입니다》

눈 앞에 다가서는 큰 봉우리를 손질하시며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산기슭을 오르면서 점점 벼랑

은 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목적지에 빨리 닿고 싶은 생각에 서로 먼저 오르려고 애쓰는 것이였지요.

《좀 쉬여 갈가요?》

선생님은 땀을 흘리는 소년단원들을 둘러 보시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지요. 대렬은 쉬지 않은채 행군을 계속했습니다.

학교에서 계획했던 시간 대로 이들은 12시에 목적지에 닿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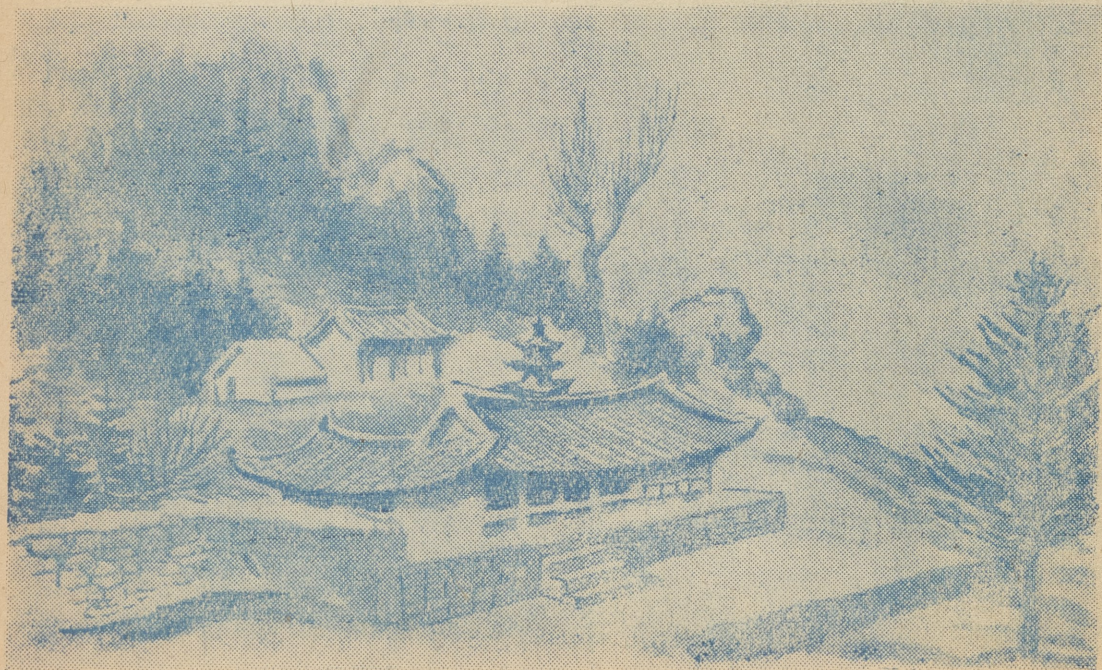
늙은 나무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원통사는 우리의 옛선조들의 솜씨를 자랑하고 있었지요.

집들은 서까래 끝이 떨어지고 그림들이 낡기는 했으나 그 솜씨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절은 1037년 고려 시대에 지은 것이랍니다》하고 선생님은 고려 시대에 한창 세력을 넓히던 불교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소년단원들은 언덕 우에서 원통사를 정성껏 그림 그린 후 점심 식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들은 하루 행군에서 자기 고향의 아름다움을 새삼스럽게 느꼈고 많은 고향의 력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서로 손목 잡고 춤추며 노래하는 소년단원들의 얼굴에는 공화국의 따뜻한 품에서 배우며 자라는 행복과 자랑으로 기쁨이 흘러 넘쳤습니다.

조군실 영웅을 배우며 따르는 소년들

원산 조 군실 고급 중학교(인민반)에서
박 정 렬

《내 팔 다리가 떨어져 나가도 나의 심장이 고동치는한 나의 중기 236호는 결코 복쑤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조선 로동당 만세!

김 일성 원수 만세!》

이것은 조 군실 영웅이 남겨 놓은 마지막 말입니다.

두팔과 두다리에 중상을 입고 움직일 수 조차 없게 되였으나 마지막 순간까지 이'발로 중기의 방아쇠를 눌러 원쑤놈들에게 불벼락을 준 18세의 민청원 조 군실 영웅— 나는 영웅의 빛나는 위훈을 더듬으며 어느날 영웅의 모교인 원산 조 군실 고급 중학교를 찾아 갔습니다.

북만산 기슭에 자리 잡은 조 군실 영웅의 모교는 동해 바다를 끼고 아름답게 펼쳐진 원산을 한눈에 바라보며 우뚝 서 있었습니다.

나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영웅이 영예로운 인민군대에 입대하기 전까지 공부한 이 모교에 들어 섰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인차 눈에 띄운 것은《조 군실 영웅의 뒤를 따르자!》라는 표어였습니다.

나는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의 안내로 먼저 영웅 연구실을 관람하였습니다.

내가 연구실에 들어 섰을 때 몇몇 소년단원들이 조 군실 영웅 형님의 초상 앞에서 영웅의 투쟁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묻기도 전에 《조 군실 영웅은 우리들의 형님입니다》.

《우리들은 조 군실 영웅 형님처럼 훌륭한 소년단원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어요》하고 저마다 영웅을 낳은 사랑하는 자기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자랑을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이 학교 민청원들과 소년단원들의 손으로 꾸려졌다는 이 영웅 연구실에는 영웅이 마지막 전투에 참가한 902.4 고지의 커다란 전투 사판이 놓여 있었고 영웅의 초상 밑에는 중기 《민청호》 236호 모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 군실 영웅의 생가의 모형, 영웅의 부대 생활기, 영웅의 전투 장면을 그린 그림들도 진렬되여 있었습니다.

나는 조 군실 영웅이 학생 시절에 쓰던 유물들 앞에서 발을 멈추었지요.

조 군실 영웅의 유년 시대라고 쓴 액자 밑에 놓인 책상 우에는 영웅이 쓰던 밥그릇과 집에서 쓰던 책상 그리고 교과서와 학습장이 있었습니다.

《영웅 형님은 교과서와 학습장을 얼마나 깨끗히 썼는지 몰라요!》. 내 곁에 선 김 경환 동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형님은 내내 최우등생이였으니까!》. 또 한 소년단원이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였습니다.

《경환 동무의 학습장도 이처럼 깨끗하겠지요》. 웃으며 나는 경환 동무에게 물었지요.

신이 나서 이야기하던 경환 동무는 그만 말주머니를 잃었는지 얼굴이 빨개지며 어쩔 줄 몰

라했습니다.

《아마 학습장을 깨끗하게 못 거두었는게지요?》. 웃으며 다시 이렇게 묻자 그제서야 그는 용기를 내여 《저도 새학기부터 학습장을 깨끗이 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영웅의 동생답군, 그래 공부도 영웅 형님처럼 잘 해야지》. 나는 경환 동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다시 발'길을 옮겼습니다.

다음 벽에는 조 군실 영웅이 학생 시절에 쓴 《우리의 행복이 샘솟는 내 조국의 아름다움이여!》라는 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웅 형님이 전선에서 교장 선생님에게 보내 온 편지의 한구절도 있었지요.

《…우리 땅에서 적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는한 나는 사랑하는 고향과 학교에 돌아 갈 것을 꿈에도 생각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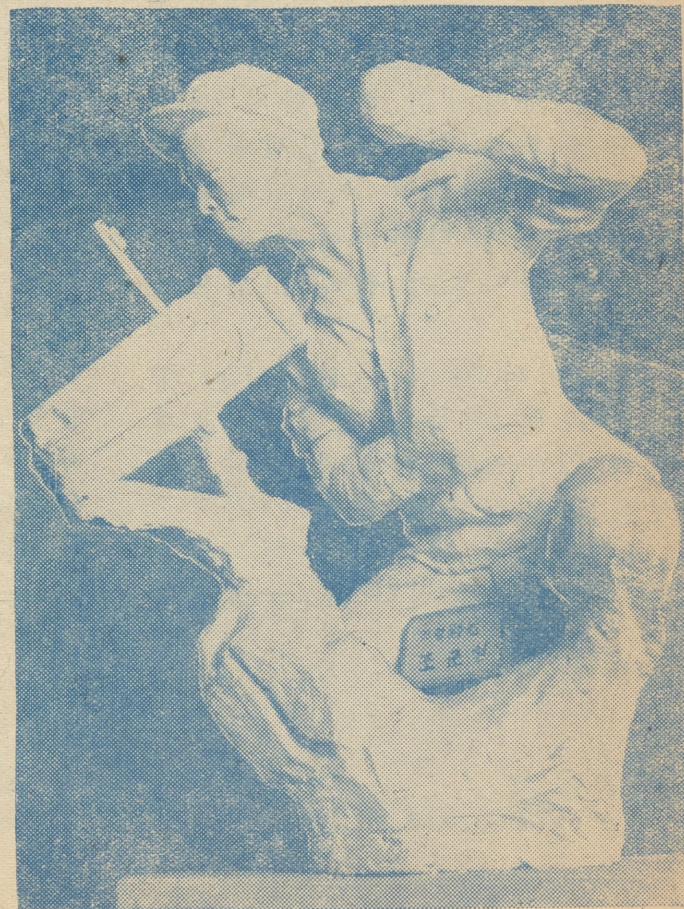
이 편지의 한 구절에서도 영웅이 얼마나 조국을 사랑하는 훌륭한 민청원이였는가를 잘 말해 주었습니다.

언제까지나 발'길을 멈추어 서게 하는 훌륭한 조 군실 영웅 연구실—나는 이 연구실을 날마다 훌륭히 꾸려나가면서 영웅을 배우며 따르고 있는 이 학교대 소년단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

《인민 군대 아저씨들! 우리는 조 군실 영웅의 이름을 가진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영예롭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영웅 오빠처럼 훌륭한 소년단원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8절 기념일에 인민군대 아저씨들에게 보내는 조옥순 동무의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이처럼 이 학교 대 소년단원들은 영웅의 모교에서 배우며 자라는 영예를 가슴 깊이 명심하

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학교대 분단 마다에서는

《누가 훌륭히 조 군실 영웅의 뒤를 따르는가》라는 분단 모임을 가지고 공부에서 뒤떨어진 동무들을 서로 돕고 있습니다.

제 13분단 벽보 《빛나는 영예》에는 수업 시간에 장난이 심하고 숙제를 잘 해오지 않던 배가부 동무와 결석을 잘 하며 산수 과목이 뒤떨어진 정 영일 동무 등 많은 동무들의 새로운 결의가 나붙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분단 동무들은 지금 조 군실 영웅 형님이 아침 마다 랭수 마찰을 한 것처럼 아침 마다 조기 체조를 하며 몸을 튼튼히 단련시켜 한사람의 결석생도 없도록 힘쓰고 있답니다.

또한 이 학교대 소년단원들은 항상 책을 사랑한 영웅 형님의 모범을 뒤따르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 위원회에서는 새로 나오는 책들을 제때에 소개하며 일주일에 한번씩 동화 구연회도 조직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나는 독서를 즐기지 않았다. 그러나 조 군실 영웅 형님의 학생 시절을 배우면서부터 책은 참다운 벗이라는 것을 알게 되였다》.

정 영삼 동무는 영웅 연구실 감상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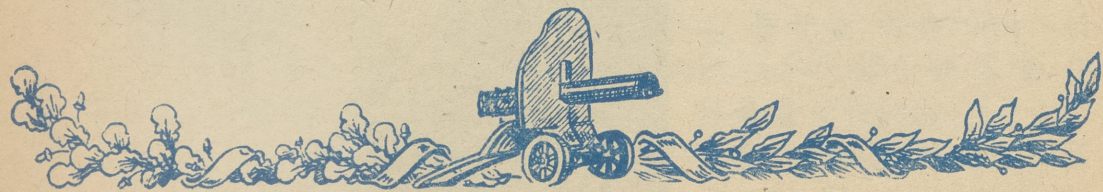
얼마 전에 이 학교 연예 써클에서는 《236호의 중기 사수》라는 연극을 훌륭히 하였습니다.

이 연극은 소년단원들에게 조 군실 영웅 형님을 배우며 뒤따르려는 결의를 더욱 굳게 다져주었습니다.

내가 만나서 이야기를 한 소년단원 동무들은 한결 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우리들의 형님 조 군실 영웅은 로동당원을 뒤따라 용감하게 싸워 이긴 훌륭한 민청원입니다.

우리도 영웅 형님처럼 조국과 인민에게 충직한 훌륭한 민청원으로 되기 위하여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것은 다만 몇몇 소년단원들만이 품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학교의 모든 소년단원들이 한결 같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아름다운 꿈이며 희망이였습니다.

로동당원들을 배우며 뒤따르자!

공훈 탄부와 한자리에서

지난 2월 7일이였습니다.

공부가 끝나자 우리 분단에서는 룡등 탄광에서 일하시는 공화국 공훈 탄부 황 학주 할아버지를 찾아 갔습니다.

우리들이 탄광에 이르렀을 때는 마침 탄부 아저씨들의 저녁 교대가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얼마 후 우리는 일을 교대하고 돌아 나오시는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분이 바루 공훈 탄부 황 학주 할아버지입니다》.

탄광 직맹 위원장 아저씨가 소개해 주시자 박 정희 동무는 미리 마련하였던 꽃다발을 할아버지에게 드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탄광 구락부에 들어가 할아버지의 보람찬 로동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게 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30년이나 이 탄광에서 일하여 온 가지가지의 이야기를 하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먼저 일제 시대의 생활을 더듬어 가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본놈 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몸서리가 난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하루에 12—16시간씩 일을 하지 않았겠니. 이렇게 일을 해도 보름 동안에 겨우 85전바께 받지 못했단다. 이것도 놈들의 비위에 틀리기만 하면 제대로 받지 못하는 수가 흔히 있었지》.

할아버지는 주름'살을 지으시며 〈왜놈들은 정말 로동자 들을 굴 속에서 소나 말처럼 마구 일을 시키였다. 그래 우리는 놈들과 이따금 맞서군했지》라고 하시면서 때때로 굴이 무너져 수 많은 로동자들이 굴 속에서 생죽음을 당하던 비참한 일제 때의 이야기를 하시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일제 시대의 우리 나라 로동자들이 얼마나 갖은 천대를 받았으며 비참하게 살아 왔는가를 잘 말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다시 해방 후의 생활로 옮겨졌습니다.

《해방 후 처음으로 우리는 탄광의 주인으로 되였고 행복한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단다》라고 하시면서 할아버지는 해방되자 인차 탄부 아저씨들과 함께 왜놈들이 허물고 간 이 탄광을 복구하고 더 많은 석탄을 캐 내기 위하여 밤과 낮을 이어 일하여 온 감격스러운 이야기들을 하시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영예로운 로동당원이 된 것은 해방된 다음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로동당원이 된 이 영예를 간직하고 지난 10년 동안 하루의 결근도 없이 날마다 이 탄광에서 일하여 왔고 해마다 자기의 계획을 넘쳐 다하군 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젊은 탄부들을 친절히 도와 주었답니다. 그리하여 1951년부터 오늘까지만 하여도 6급공 이상의 기능공들을 30명이나 길러 내였지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우리들은 무엇보다 할아버지의 나이가 65세이라는데 그만 놀랐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만으로도 생활은 넉넉하실텐데, 65세나 된 할아버지가 왜 일하실가?》.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시며 《나는 로동당원이 아니냐, 이 이름은 언제나 나를 젊게 해 주는구나, 하긴 젊은이들이 때때로 말한다. 이젠 좀 쉬운 일이나 하라고. 이게 될 말이냐. 로동당원이야 어려운 일의 앞장에 서는 사람이지,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놀고 먹을 수야 있니. 내 힘이 자라는 때까지 귀중한 조국과 우리 인민을 위해 힘껏 일할테다》라고 하시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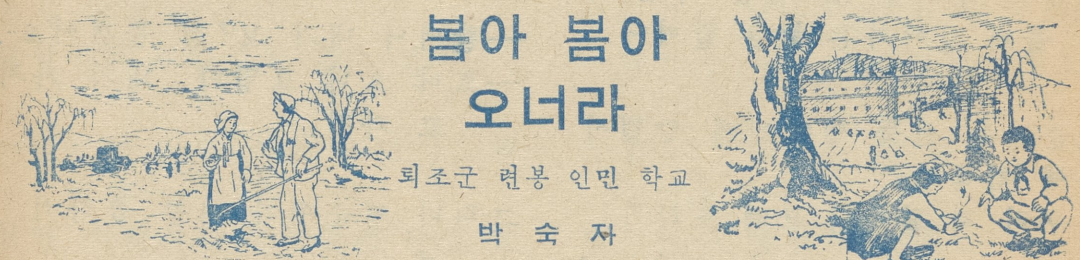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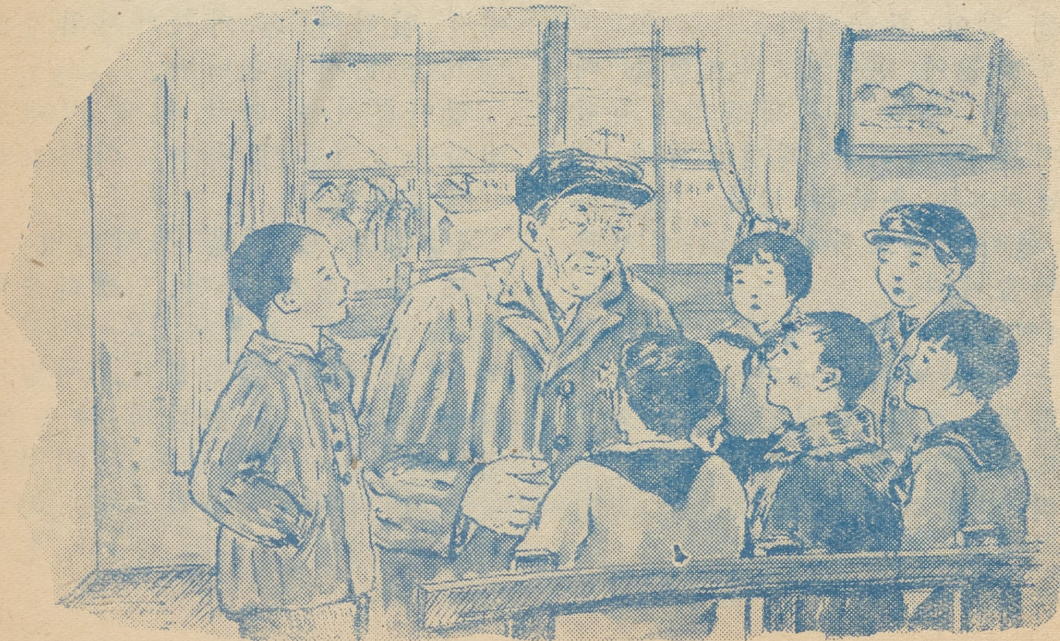
끝으로 할아버지는 청년 탄부들과 경쟁을 걸고 더 많은 석탄을 캐 내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 이야기들도 하시였습니다.

《할아버지, 지금도 경쟁에서 청년들을 따라 갈 수 있나요?》 하고 권 정덕 동무가 물었을 때 할아버지는

《있구 말구, 얼마든지 있구 말구》라고 웃으며 말하지였습니다.

탄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우리들은 모두 깊이 감동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탄부이시다〉라고.

평북 구장군 룡등 인민 학교 대 제1분단 위원장 리 재 봉

봄아 봄아 오너라

퇴조군 련봉 인민 학교

박 숙 자

봄아 봄아 오너라 어서어서 오너라.
솔솔 부는 바람 싣고 한밤 자고 오너라.

봄아 봄아 오너라 앞산에도 오너라.
아물아물 아지랑이 춤추며 오너라.

봄아 봄아 오너라 앞들에 오너라.
협동 조합 아빠 엄마 어서어서 씨뿌리게.

봄아 봄아 오너라 학교에도 오너라.
우리들의 실습지 어서어서 꽃피게.

어서어서 꽃피고 어서어서 열매 맺게,
산에 들에 실습지에 봄아 오너라.

동시

영순이와 인숙이

개천 초등 학원 3학년

리 용 흡

영순이와 인숙이
손목 잡고 오손 도손
학교'길 가다가
할머니 한분 만났었지요.

머리가 하얀 늙은 할머니
등에는 무거운 보'짐을 지고
힘 들게 걸어가는 늙은 할머니

영순이는 선뜻 인숙에게 말했지
—얘 인숙아,
우리 저 할머니 모셔 드리자.

—아니 아니 난 싫어,
우리 할머니도 아닌데.

—그럼 그만 둬,
내가 모셔 드릴테야.
영순이가 혼자서 찾아 갔었지.

—할머니 내가 보'짐 들겠어요.
—오냐 오냐 고맙다 내가 가지
고 가지.

그러나 영순이가 너무 졸라서

할머니는 할 수 없이 보'짐 주
었지.

×

말 없이 뾰르퉁
혼자 걷던 인숙이
웬일인지 웬일인지 문뜩 섰지요.

—언제나 마음 착한 소년이 될
테야—
입단 서약식날 동무들께 다진 말
인숙이는 문뜩 생각 났지요.

—잘못 했으면 인츰 고쳐야지
인숙이는 또 생각했지요.

뾰르퉁하던 얼굴에
웃음 띄운 인숙이
할머니의 손목을 꼭 잡고서
—할머니 나하고 같이 가시자요.

—그래 그래 어서들 같이 가자,
어쩌면 이렇게 좋은 애들 뿐
이냐.

기뻐하시는 할머니에게
영순이가 먼츰 말했지요.
—할머니 난 소년단원이야요.

인숙이가 인숙이가 또 하는 말
—할머니 나도 소년단원이야요.

—응 소년단원은 참 훌륭한 애
들이로구나.
할머니는 몇번이고 몇번이고
말씀하셨지.

소설

피를 판 소년

박 덕 수

(전호의 계속)

《애, 네 이름이 뭐이지?》.

《영수예요》.

영수는 입을 실룩거리였습니다.

《거 이름부터 좋구나, 잘 생기구 공부도 잘하겠구나, 그런데 얘 영수야, 학교에서 저금을 내라는게 정말이냐? 우리 집 녀석이 자꾸 성화를 마끼니 학교엘 물으러 가는 참이다》.

《학교에 물어 볼 필요도 없어요. 내지 않으면 당장 쫓아낸대요》.

《다들 참 야단이 났구나, 그래 너는 어떻게 내겠느냐?》.

영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리를 숙으리고 있다가 《전 먼저 가겠어요》하고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사람이 따라옵니다.

《얘 영수야, 너도 저금을 내기 힘든 모양이로구나. 아버지가 뭘하시니?— 이런, 얼마나 추울가, 속내의도 없이》.

사나이는 영수의 몸을 만져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영수야, 보니 너도 가난한 집 아이로구나. 그냥 보내기가 아깝다. 내가 네 일을 도와 줄가?》.

영수는 귀를 솔깃했으나 여전히 의심쩍은 생각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얘, 너 착하지. 어른의 말을 잘 듣구, 네 저금을 마련하는 수를 대주께》하고 사나이는 영수와 함께 걸으며 수근거렸습니다.

《네 피를 팔려므나 조금만 팔면 돼》.

《네?》.

영수는 깜짝 놀래며 선뜻 멈춰 섰습니다.

《우리 집 놈도 그렇게 헐테여, 지금 나와 같이 가지》.

《안돼요.엄마께 물어 보구요》.

《걱정 말어라,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피를 사는 은행이 있는줄 알겠지, 조금만 팔아도 천환씩 준다. 가자, 무서워 말구. 응 영수! 너 착하지》.

(천환!)(지금 남조선에서 천환은 영화를 세번밖에 볼 수 없는 적은 돈이다—편집부)

영수는 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영수는 원래 침착한 아이였으나 천환이면 저금을 내고도 남으니까 나머지를 엄마에게 갖다 바칠 수도 있다는 순진한 생각으로 차차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피를 뽑아도 괜찮어요? 그러구 돈은 당장에 줘요?》.

《허허…너 참 똑똑하구나, 그깟 천환어칠 뽑아선 아무치도 않아. 좀 맥이 없지만 하루만 지나면 얼마든지 뿔차기도 하게 된단다. 아무 탈이 없는데다 돈 천환이 생기구— 이런 호박이 어디 있겠니?》.

영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꾀이는 이 사나이는 과연 누굴가요? 피를 사고 파는 것을 중간에서 소개하는 이를테면 《혈액뿌로카》라는 악한인 것을 몰랐습니다. 이런 뿌로카들은 학부형이라는 핑계로 학교 당국을 끼는 한편 또 돈으로 리승만 《정부》와 경찰을 끼고 이런 나쁜 짓을 합니다.

사나이는 큰 길을 가다가 세브란스 병원으로 들어 갑니다. 얼마 후에 영수는 층층대를 내려서 어둑스레한 지하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방 안은 몹시도 움칠하고 약 냄새가 물씬 풍겨왔습니다. 방안에는 의사 차림을 한 땅딸보 같은 령감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뜨끈뜨끈한 필 사시구려》.

영수를 데려 온 사나이의 말입니다. 그는 련신 히히 웃으며 허리를 굽실거립니다.

령감은 큰 주사침을 들고 다가 옵니다.

영수는 그제서야 또다시 겁이 나고 뛰여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아저씨! 전 가겠어요》.

《못가!》.

그렇게 정답게 대하던 그 사나이는 갑자기 영수의 앞을 가로 막고 무섭게 노려 보며 그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놔요, 놔—》.

영수는 몸부림을 쳤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나이가 팔을 꽉 붙잡고 령감이 주사침을 쑥 들여 밉니다.

영수가 뜨끔 놀래는 순간 벌써 주사기는 붉은 피를 줄줄 빨아 냅니다. 주사기에 피를 가득 가득 채운 다음 바늘은 꽂은대로 두고 주사관만 빼여 피를 딴데 쏟고는 또 들여 밉니다.

피는 또다시 뽑힙니다. 영수는 차츰 몸이 나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영수는 악을 쓰며 소리를 쳤으나 잔인한 그들은 350그람 이상이나 뽑았습니다. 워낙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는 쇠약한 몸이니까 영수는 유달리 신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영수는 당장 땅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사나이는 령감과 쑥덕 공론을 하다가 돈 천환을 꺼내여 영수의 주머니에 넣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터무니 없는 헐값입니다. 서울에서는 피 500그람에 혈액 은행에서 5—6천환, 야미값으로 1만환 내외를 하니까 혈액 은행의 값으로 치더라도 350그람이면 적어도 3—4천환 정도는 주어야 할게 아닙니까?

그러나 영수는 이런 홍정을 알리도 없었거니와 주머니에 넣어 준 것이 돈인지 무엇인지 조차 분간할 경황도 없었습니다.

얼마후 가까스로 일어섰습니다.

《피가 좋군…흥 오늘은 장땅인데》.

영수는 이런 소리를 등골에 징그럽게 느끼며 피실피실 밖으로 겨우 나왔습니다. 바깥은 밤의 어둠이 아가리를 벌리고 소리없이 짙어가고 있었습니다.

× ×

자정이 훨씬 넘은 이슥한 밤에 희슥희슥한 그림자가 허둥지둥 달려오다가 큰 길'가의 병원 앞에서 멎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아버지가 영수를 업고 병원으로 찾아 온 것입니다.

《문 좀 열어 줘요》.

어머니가 정신 없이 소리를 지르며 쾅쾅 대문을 두드리니까 그제서야 집 안에서 인기척이 납니다.

《누구요? 이 밤 중에》.

집 안에서 굵은 말소리가 나자 어머니는 또다시 고함을 지릅니다.

《어서 문 열어요. 아이가 죽어가요. 아이가…》.

컴컴한 집 안에 성냥 빛이 거물거물하다가 다시 번득하는 것이 현관의 문틈으로 보였습니다.

이윽고 문이 열리자 몸집이 큰 중년의 사나이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의사였습니다.

《들어 오오》하고 의사는 총총걸음으로 병실로 들어가서 불을 켤 차비를 합니다.

초'불이 달리자 아버지는 얼른 침대에 아이를 내리였습니다. 아이는 얼굴이 재'빛으로 변하고 있었으나 아직도 씩씩거리며 가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아이의 가슴을 만져보더니 돈 5천환은 있어야겠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영수네 집에 돈 5천환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의사의 손목을 쥐고 살려 달라고 애원하면서 넋 없이 헛소리를 칩니다.

《선생님! 제발 아이의 목숨만 구해 주시요. 피! 피를 팔았대요》.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끝을 맺었습니다.

《엄마, 이 원쑤를 꼭 갚아 주어요》.

하고 이 순간 영수는 실날 같은 숨소리로 새근거리다가 그만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에고— 영수야, 네가 웬 일이냐? 이 녀석아》.

어머니는 영수에게 왈칵 엎드리고 하염 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망할 놈의 세상 같으니 학교라는게 살인장이구나. 예쌍, 어서 벼락이 떨어져라!》.

아버지의 움펵 패여 들어간 두 눈에서 불꽃이 튕겨 나옵니다.

의사는 겁에 질려 문을 차며 빠져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목을 쥐였습니다.

《어디 보자. 이 원쑤놈들아 모든게 네놈들의 탓이다. 내 자식의 피를 빨고 견디는가 보자, 이놈들아!》.

어머니는 한참 동안 울다가 소매 끝으로 눈물을 씻으며 일어나서 몸을 후두두 떨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도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미국놈들과 리승만 도당이 틀어쥔 남조선 사회에 대한 원한과 저주, 그리고 투쟁의 새로운 결의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안 성국 호 기관차는 기적 소리를 높이 울리며 도시와 농촌과 어촌으로 밤과 낮을 이여 건설 물자를 싣고 달리고 있습니다.

이 안 성국 호 기관차는 지금 민청원 리 성배 기관사가 운전하고 있습니다.

안 성국 호를 운전하는 영예를 지닌 리 성배 기관사와 그의 승무조원들은 안 성국 로력 영웅이 항상 기관차를 자기 몸처럼 알뜰히 다루며 군수 물자 수송 임무를 언제나 훌륭히 해낸 빛나는 위훈을 본받아 금년도 수송 계획을 103%로 넘쳐 끝낼 맹세를 다지고 오늘도 힘차게 싸우고 있습니다.

안 성국 영웅은 지금 우리의 기관사들 속에 없으나 그의 이름은 언제나 안 성국 호 기관차의 이름과 함께 남아 있을 것이며 그의 빛나는 위훈은 우리의 가슴마다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입니다.

× ×

로동당원이며 민청원이였던 안 성국 영웅은 조국 해방 전쟁의 첫날부터 로동당과 조국과 인민의 부름에 따라 전선에 군수 물자를 실어 나르는 수송 전선에서 싸웠습니다.

그리하여 안 성국 영웅은 폭격과 함포 사격이 심하던 동해안 연선에서 날마다 사랑하는 기관차 미가서 158호와 더불어 수많은 군수 물자를 전선에로 실어 날랐습니다. 그는 이 어려

운 일을 언제나 훌륭히 해냈습니다.

그리하여 1952년에는 11월에 벌써 한해 계획을 180.8%로 넘쳐 다했습니다.

이 빛나는 성과 속에는 안 성국 영웅이 끊일 사이 없는 적기의 폭격과 적함의 함포 사격을 용감하게 뚫고 기관차를 몰아 나간 가지가지의 빛나는 이야기들이 깃들어 있습니다.

1952년 1월 18일 밤에 있은 일입니다.

이날도 안 성국 영웅은 군수 물자를 싣고 전선을 향하여 달리고 있었습니다. 석왕사역에 잠시 머물었던 그가 다시 렬차를 몰아 나가려고 기관차 있는 데로 가려 할 때였습니다.

적 비행기 3대가 렬차를 발견했는지 역 우에 나타나 20여개의 조명탄으로 기관차 주위를 대낮처럼 밝히고 폭탄과 기총탄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안 성국 영웅은 비'발처럼 퍼붓는 폭격 속에서 사랑하는 기관차를 끌어 내야 했습니다.

(전선에 군수 물자를 나르는 것은 당과 조국과 인민이 나에게 맡겨 준 신성한 임무다. 이 신성한 임무를 맡은 내가 전선으로 향한 렬차를 어찌 폭격 속에 그대로 둘 수 있겠는가. 로동당원이며 민청원인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렬차를 전선으로

몰아 가야 한다!》.

이렇게 다짐한 안 성국 영웅에게는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동무는 대피하여 적기를 살피시요. 기관차는 내가 끌어 내겠소》.

그는 한마디 이 말을 기관 조사에게 남기고는 기관차를 향하여 달려 나갔습니다.

기관차에 뛰여 오른 안 성국 영웅은 침착하게 레바를 틀어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또다시 폭탄 터지는 불'빛이 기관차를 뒤덮었습니다. 그러자 육중한 기관차는 몸부림 쳤고 파편은 그의 귀'가를 스쳐 지났습니다.

바로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그는 대담하게 기관차를 몰아 전선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그는 이러한 어려운 고비를 열일곱번이나 겪어 내였고 그때마다 그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쳐 용감히 싸워 이겼습니다.

1953년 1월 28일 밤이였습니다.

이날 밤, 안 성국 영웅은 출발을 앞두고 사랑하는 기관차 미가서 158호와 함께 렬차를 갈아 대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밉살스러운 하늘 날강도들이 날아 들더니 렬차들을 발견하고, 내려 꽂히며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련방 폭탄이 사방에서 폭발하며 기총탄이 소낙비처럼 날아쳤습니다.

안 성국 영웅이 운전하고 있는 기관차 량쪽에서도 련방 폭탄이 튀고 그 불'길이 기관실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날강도놈들, 날칠테면 날쳐라. 폭격 앞에 굴할 내가 아니다. 나는 굴할 줄 모르는 로동당원이며 민청원이다! 전선을 향하여 달리고야 말리라!)

폭탄 튀는 불'길이 기관차를 휘감는 그 속에서도 안 성국 영웅은 기관차를 안전한 곳으로 운전해 가려고 레바를 꽉 틀어 쥔채 기관차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서 기관차에서 내리라!》.

역 홈에서 일하던 동무들이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그가 듣

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전쟁 첫날부터 자기와 함께 잘 싸워 준 기관차를 폭격 속에 두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폭격이 끝나자 동무들이 기관실로 달려 왔습니다. 그때까지도 그의 손은 여전히 레바를 튼튼히 틀어 잡고 있었습니다.

《동무들! 기관차는 아무 일 없소. 자 빨리 전선으로 달립시다》.

안 성국 영웅은 심한 부상을 입었으나 여전히 전선으로 달리려고 기관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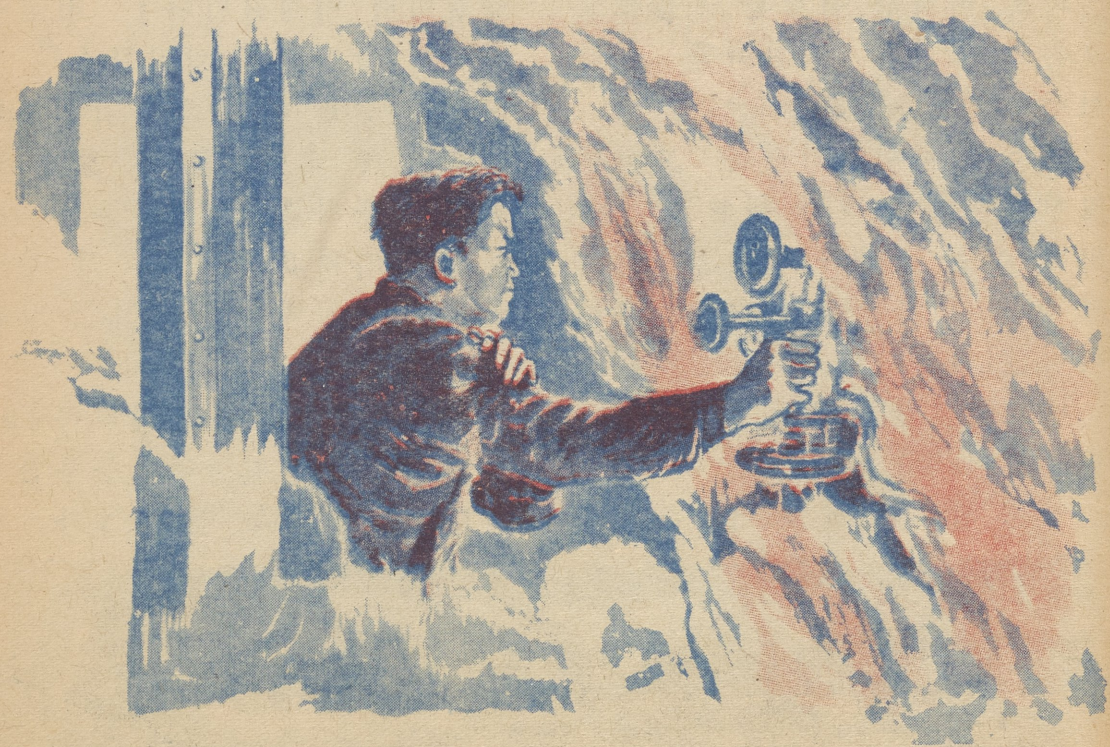
그때로부터 이틀이 지나 영웅의 마지막 순간이 가까와 왔습니다.

이것을 깨닫자 안 성국 영웅은 세포 위원장과 자기의 친한 벗들을 불렀습니다.

《세포 위원장 동무! 저를 결코 당에서 떠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계속 동무들과 함께 싸우고 있다고 믿어 주십시요!》.

바로 이 고귀한 정신—이것이 영웅을 난관과 애로를 이겨내게 하였고 자기에게 맡겨진 성스러운 임무를 빛나게 수행하게 한 것입니다.

(리 동 무)

여러가지 란

그럴수 없다

어느 날 아침입니다.

철식이네 교실 교탁 우에는 코'물을 훔친 종이 꿍지가 하나 뒹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본 한 아이는

《깨끗한 우리 교실에 이게 웬 일이야?》하고 몹시 놀랬습니다.

뒤따라 들어 온 아이도

《누가 버렸어? 코 푼 종이를 여기다가…》하고 손'가락질하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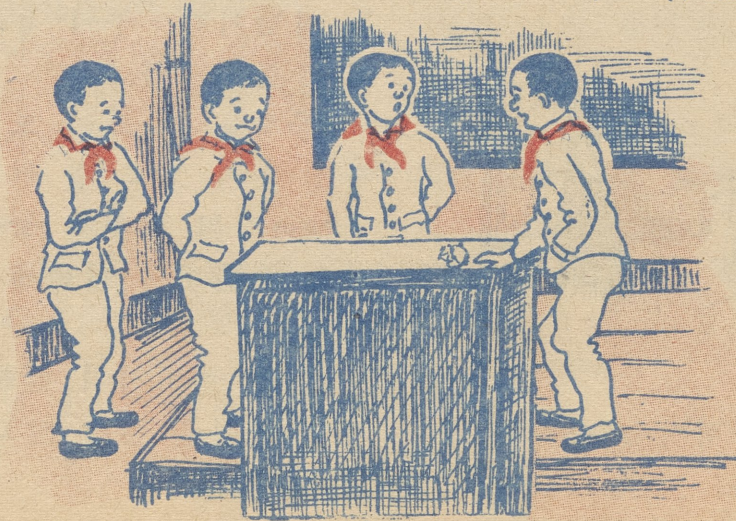
이윽고 여러 아이들이 모여 왔습니다.

《이건, 여기에 버린 애에게 주어 버리게 해야 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만 많고 한 아이도 그것을 버릴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 ×

동무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종이 꿍지를 교실에 버린 아이의 잘못이지만 그것을 보고도 말만 하고 버릴 생각하지 않는 아이도 나쁘다》고.

말 파 행 동

학교에서 돌아 오는 길입니다.

소년들은 학교의 실습지를 잘 가꾸어 나갈 이야기들을 합니다.

마을 협동 조합 밀 밭이 바라 보이자 한 아이가

《야 밀이 새파랗게 돋아났구나, 이제 두달 지나면 이삭도 돋아날게야. 그때 새들이 이삭을 쪼으면 모두 몰아 주자꾸나》

하고 말합니다.

《새만 몰아 줄가, 밀 가을할 때, 밀 단도 날라 주지》.

이야기는 끝이 없었습니다.

집'가까이의 갈래'길에 이르자 한 아이가 누가 먼저 정미소 앞까지 가는가를 내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지금까지 한 자기들의 이야기를 잊어버렸는지 저마끔 앞을 다투어 협동 조합 밀 밭으로 질러 달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몇번만 더 있으면 밀 밭에 밀 이삭이 아니라 밀 싹도 제대로 돋아나지 못할 것 입니다.

영남이와 누이동생

영남이의 아버지는 공책을 두 권 사왔습니다.

하나는 영남에게 주고 또 하나는 영남이의 누이 동생 영순에게 주었습니다.

《공책을 다 쓰면 또 사다 주지! 찢지 말고 잘 써라》.

아버지의 말씀이 끝나자 영남이는 우쭐대며 영순에게 타이릅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지? 공책을 찢지 말고 아껴 써야 해!》.

누이 동생 영순은 잘 알았다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영남이는 그림을 한장 그리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영남이는 아버지가 사다 준 자기의 새 공책을 바라 보다가

《내 공책은 아까와, 영순이야 일학년인데 공책을 많이 쓰나…》.

이렇게 생각하고 영순이의 공책을 찾았습니다. 공책을 번지다가 한 복판에서 한장을 떼여 냈습니다.

공책장에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 밖에 나갔던 영순이가 들어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남이는 공책장을 슬그머니 책상 밑에 밀어 넣었습니다.

《오빠! 앞집 명희가 공책을 뜯어서 학을 만들자고 그랬어. 공책을 뜯으면 안되지, 응?》.

이때 동무들이 만약 영남이가 되였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리 기 봉)

《손으로 도와 주렴》

학교에서 돌아온 반 동무들
복습이 끝나면 집안일 돌보자고
서로들 모여 앉아 의논을 할때
영수가 일어나서 하는 말

《나는 집에서 많은일 할 수 있어
만일 허리만 아프지 않다면
아침마다 뜨락을 말끔히 쓸 수
있고
만일 날씨만 그다지 춥지 않으면
어머님 심부름도 갔다 올 수 있지

나는 장작도 쉽게 빠갤 수 있지
만일 손바닥만 아푸지 않는다
면—,
나도 어린 동생 달랠 수 있지
만일 그가 울지만 않는다면—》

× ×

그러자 동무들은 그에게 말했지
《영수야 너는 꾀만 부리지 않
으면
날마다 많은 일 할 수 있구나
입으로만 돕지 말고 손으로 도
와 주렴》.

(신 진 균)

여러가지 글

원쑤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자

김 명천 동무는 우리 학교 소년들의 두터운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훌륭한 소년단원이랍니다.

지난 여름에 그는 적 간첩 한놈을 깜쪽 같이 잡았습니다.

명천이가 바로 분단 모임을 끝마치고 좀 늦게 집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약 3KM가량 떨어져 있는 새'골 다리에 이르렀을 때 다리 밑에서 낯모를 사람이 나오더니

《얘, 여기 리 인민 위원회가 어데 있니?》하고 명천이에게 묻는 것이였지요.

어른들을 항상 존경해 온 명천이는

《아직도 10리는 남아 가야 해요》하고 친절히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명천이는 그 사람이 겁에 질린 사람처럼 정신 없이 앞뒤를 살피는 것을 보고 어쩐지 심상치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얘, 인민 반장네 집은 어데 있느냐?》하고 묻지 않겠어요.

명천이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제가 모셔다 드리지요》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얘, 난 좀 있다 가겠다. 너 먼저 가거라》. 하지 않겠어요.

명천이는 문뜩 언젠가 선생님이

《간첩놈들은 우리 소년들을 꾀여서 비밀을 알아 내려고도 한답니다》라고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틀림 없이 수상한 사람이야. 정말 적 간첩놈이나 아닐가?》.

명천이는 슬쩍 《아저씬 지금 어데로 가시는 길입니까?》하고 물었습니다.

《덕천'골로 가는 길이다》.

《덕천'골에요? 날이 저물겠는데 이제 어떻게 거길 가겠어요. 아무데서나 쉬고 가시지요》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그는 《글쎄, 지금 덕천'골 삼촌집까지 가야겠는데 날이 저물어 걱정이구나》라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오라 자고 갈 생각이 있는가보다)고 눈치차린 명천이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자기 집까지 데리고 가리라 생각했습니다.

《아저씨 그럼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우리 집은 어머니와 나와 단 두식구 뿐이고 넓은 방도 둘씩이나 있으니 조금도 괴로워하실 것 없어요》하며 명천이는 그의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는 혼자'말로 《오늘 저녁 삼촌네 집에 들리고 래일은 이곳 분주소에도 들려야겠는데…》하며 머리를 기웃거리더니 《얘, 그럼 하루 저녁 너의 집에서 쉬고 가자꾸나》하며 명천이의 뒤를 따라서는 것이였습니다.

이리하여 명천이는 그를 자기 집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명천이는 어머니에게 슬쩍 눈짓을 하고 저녁을 빨리 지으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일'손을 도와 주는 척 하면서 뒤'문으로 빠져 밖으로 나갔습니다. 명천이는 곧 리 인민 자위대 형님들에게로 달려 갔지요.

명천이의 재빠른 행동을 그는 알리가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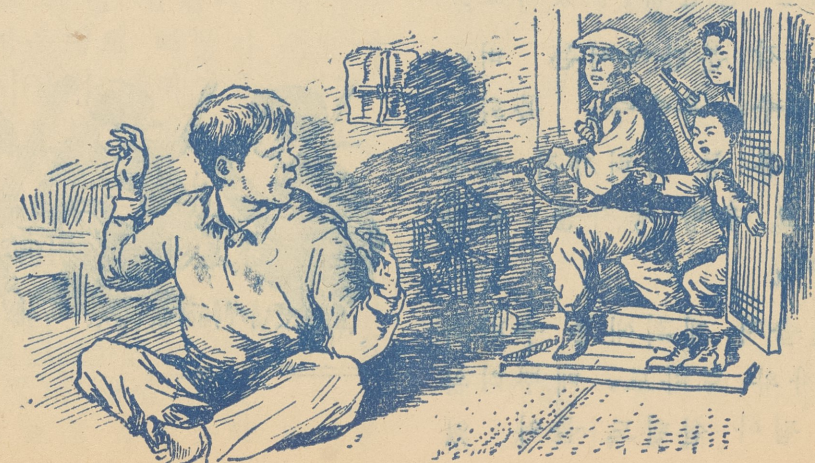
얼마 후 리 인민 자위대원들은 명천이네 집을 둘러 싸고 그를 체포하였고 곧 내무 기관에 넘기였습니다.

군 내무서에서 조사한 결과 그놈은 적 간첩놈이였습니다.

그놈의 몸에서는 무전기 1대와 권총 1개, 독약 5병 기타 많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명천이는 참으로 훌륭한 소년단원이지요.

우리 학교 소년단원들은 이 명천 동무의 모범을 본받아 언제나 원쑤놈들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구장군 소민 인민 학교 대
위원장 리 원 명

봄 맞 이

우리 학교 소년단원들은 올해에도 학교의 실습지를 더 훌륭히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지금 한창 봄맞이 준비에 바쁩니다.

우리들의 이 봄맞이 준비는 벌써 겨울 방학 때부터 시작되였지요.

겨울 방학에 우리들은 가까이에 있는 중마 농업 협동 조합을 찾아가서 관리 위원장 아저씨로부터 선진 영농법에 대한 이야기와 지난해의 농사에서 얻은 경험들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리하여 올해에 우리들은 학교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200여평의 실습지에다가 70여종의 재배 식물을 심기로 의논하고 벌써 퇴비를 운반해 놓았지요.

그리고 각 분단에서는 벼, 조, 피, 수수, 옥수수, 목화, 두류, 야채류 등 여러가지 종자들을 모으고 우량 종자를 골라내였습니다.

올해 실습지 계획에는 수박과 호박, 감자와 도마도, 메뿌리와 고구마의 접아 실험도 들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들은 실습지에서 옥수수의 다수확 재배법을 배우기 위하여 여러가지 종자를 심고 재배법을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개성에서 얻어온 인삼과 약초도 심으려고 합니다.

며칠 전부터 우리 학교 온실에서는 호박, 도마도, 가지, 오이, 고구마, 배추 등 어린 싹들이 자라나고 있지요.

벌써 우리들의 실습지 일지에는 날마다 새로운 성과들과 경험이 기록되여 가고 있습니다.

함남 영흥 제1 중학교(인민반)

제5 학년 김 여 성

3.1 운동 이야기

김 동 길

3월 1일은 지금으로부터 37년전인 1919년에 우리 인민들이 우리 나라를 빼앗은 일본 제국주의 강도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일어나 싸운 뜻 깊은 기념일입니다.

1910년에 우리 나라를 점령한 일본 제국주의 강도들은 우리 나라를 자기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고 조선 인민의 재산과 로력을 마음대로 빼앗기 위하여 눈알이 뒤집혀 날뛰였습니다.

놈들은 조선 인민들이 일제를 반대하여 일어나는 것을 억누르기 위하여 조선의 방방곡곡에다가 헌병, 군대, 경찰들을 늘어놓고 또 조선의 풍부한 자원과 조선 인민의 피땀을 짜내기 위한 법을 꾸며 냈습니다.

놈들은 조선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어떤 토지나 건물이든지 관청에서 증명을 내야 자기 것이 된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법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 농민들은 알지도 못하였고 혹 아는 사람도 어떻게 증명을 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곧 기한이 넘었다고 핑계를 대며 또는 딴 사람의 증명을 냈다는 등 이리 핑계 저리 핑계로 조선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았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일본놈들은 조선의 광산도 빼앗았으며 바다의 고기잡이도 독차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 사람에게는 공장, 제조소들을 만들 수도 없게 하였고 장사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쌀, 광석, 목화, 담배 들을 헐값으로 빼앗아 가고는 자기들의 상품을 비싼 값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일본 강도놈들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교과서와 잡지도 조선 말로 내지 못하게 하고 조선 민족의 력사까지도 없애려고 하면서 일본말을 《국어》라고 하여 강제로 배우게 하였습니다. 사립 학교는 강제로 없애고 몇개 안되는 중학교에서는 돈 많은 자본가나 지주의 아들들만이 공부할 수 있게 하였으며 조선 사람에게는 글과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놈들은 조선 인민을 굶주림에 몰아 넣었으며 조선 인민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 인민은 일제의 착취와 억압에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조선 인민은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일제 강도놈들을 반대하는 투쟁은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한 투쟁은 아직 강력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이 투쟁의 앞장에 나서야 할 로동 계급이 아직 힘이 약하였기 때문에 농민들의 투쟁을 이끌어

나가지 못한 까닭이였습니다.

때마침 1917년 10월에 로씨야에서 위대한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하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로동자 농민의 자유로운 나라가 생겼다는 소식이 조선 인민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은 일제 강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불타고 있던 우리 인민들을 더욱 힘찬 투쟁에로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리하여 조선 인민은 1919년 3월 1일 나라의 독립을 찾기 위하여 한결 같이 일어나 일제와 싸웠습니다.

이것을 3·1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이러한 독립 운동을 조직하고 지도 할만한 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 운동은 뚜렷한 조직과 계획이 없이 시작되였습니다.

그러나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일어선 우리 인민들은 용감히 싸워 나갔습니다.

이날 서울에서는 수십만 인민들의 참가 밑에 시위가 진행되였습니다. 이 시위에는 로동자 농민들뿐만 아니라 수 많은 학생들도 참가하였습니다.

시위 운동자들은 《조선 독립 만세!》《일본 군대와 일본인들은 물러 가라!》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시위를 하였습니다. 서울에서의 시위는 온종일 진행되였는데 어찌나 그 힘이 세찼든지 그렇게 호통을 치던 일제 강도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 감히 손을 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부터 일제는 군대와 경찰, 헌병들을 있는 대로 다 풀어 조선 인민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은 서울 시민들은 3월 5일에 다시금 시위 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에서 독립 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조국의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자 일제를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억센 불'길은 이땅 가는 곳마다에서 더욱 더 세차게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인천, 대구, 부산,

평양, 원산 등 조선의 방방곡곡에서 시위와 폭동들이 진행되였습니다.

인민들은 도끼, 괭이, 낫, 몽둥이 등 닥치는 대로 손에 들고 헌병대, 경찰서, 군청, 면 사무소 등 일제의 관청들을 습격하여 짓부셨으며 친일파, 민족 반역자, 악질 지주놈들을 처단하면서 용감히 싸웠습니다.

이 3•1 운동은 3개월 동안이나 계속되였습니다. 이 독립 운동에는 실로 2백만명 이상의 인민들이 참가하였으며 전국의 218군 중 211군에서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혹심한 탄압으로 인민들의 정당한 이 투쟁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투쟁에서 일제에게 부상되고 죽은 애국자의 수는 2만 3천명이 넘었는데 여기에는 로동자 농민 뿐만 아니라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청년 학생들과 그리고 어린 소년 소녀들도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3•1 운동은 비록 실패로 돌아 갔으나 이 투쟁은 결코 헛되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3•1 운동은 일제 강도에게 우리 인민이 준 처음으로 되는 큰 타격일 뿐만 아니라 조선 인민의 용감한 투쟁을 세계에 널리 알렸으며 그후 일제를 반대하는 우리 인민들의 해방 투쟁에 커다란 경험과 교훈을 남겨 주었습니다.

미래의 조선을 질머진 소년단원 동무들! 우리들은 지난날 이와 같이 우리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이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굴할 줄 모르고 싸워 온 불타는 애국심을 본받아 훌륭한 새조선의 애국자로, 씩씩한 새 나라의 일'군이 되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 나갑시다.

물속에서 달아보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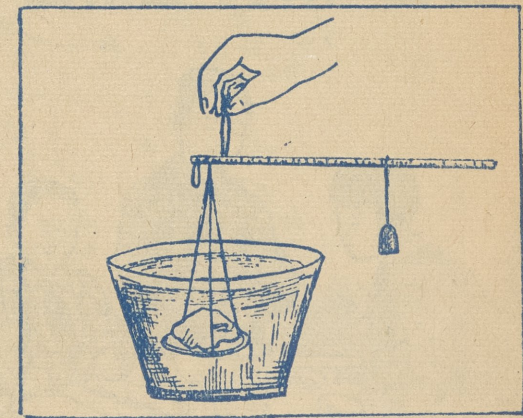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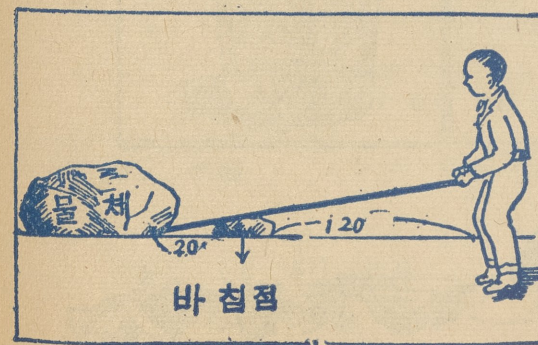
물을 담은 그릇 속에 500g의 무게를 가진 돌을 넣고 그림과 같이 물 속에서 돌을 다시 저울에 달아 보시요.

돌의 무게는 300g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가요?

여러가지로 실험해 보십시요

× ×

물은 물 속에 들어 오는 모든 물체를 무엇이든지 우로 밀어 올리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물의 부력》이라고 하지요.

같은 무게의 물체이라도 그 체적이 크면 클수록 물 속에서의 무게는 적어집니다. 기선이나 군함과 같은 큰 배들이 바다 우에 뜨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물의 부력》 때문이지요.

지레를 리용하여

그림과 같이 지레를 사용하여 큰 물체를 들어 봅시다.

만일 그림에서와 같이 받침점에서 돌맹이 밑 지레 끝까지의 거리를 20cm라고 하고 받침점에서 손까지의 거리를 120cm라고 했을 때 우리가 30kg 무게의 힘으로 지레를 내려 누른다면 지레는 얼마마한 무게의 물체를

떠 올릴 수 있을가요? 여러 가지로 실험해 보십시요.

× ×

이 실험에서 우리는 받침점에서 돌맹이 밑 지레 끝까지의 거리와 받침점에서 손까지 거리의 배수 만큼 무거운 물체를 떠 올릴 수 있게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거리의 배수는 $\frac{1}{6}$에 해당되는 것만큼 힘에 있어서도 6배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30kg \times 6 = 180kg$, 즉 180kg의 물체를 떠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을 저어 보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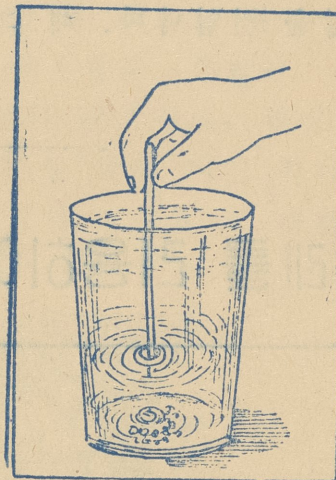
컵 속에 먼지 혹은 찌끼가 있는 물을 담고 젓가락으로 저어 보시요.

먼지나 찌끼는 컵 바닥의 벽에 붙지 않고 바닥 중심에 모일 것입니다.

왜 그럴가요?

× ×

컵 속의 물을 젓가락으로 저으면 물은 돌기 시작합니다. 이때 물의 웃 면에서는 중심으로부터 가장자리를 향하여 돌며 아래 쪽에서는 가장자리로부터 중심으로 향하여 돌아 갑니다.

이와 같은 운동에 의하여 먼지나 찌끼는 컵 바닥의 중심에 모이게 됩니다.

오락 해답

우에 실린 오락 해답 그림은 다음과 같이 합하여 된 것입니다.

1의 몸+ 3의 골=고양이
2의 몸+ 6의 골=개
3의 몸+ 1의 골=토끼
4의 몸+12의 골=돼지
5의 몸+ 8의 골=염소
6의 몸+ 9의 골=말
7의 몸+11의 골=사슴
8의 몸+ 2의 골=캥가르
9의 몸+ 5의 골=사자
10의 몸+14의 골=범
11의 몸+ 7의 골=늑대
12의 몸+ 4의 골=물개
13의 몸+10의 골=곰
14의 몸+13의 골=다람쥐

앞표지……뜨락또르 운전수와 한자리에서…………김 창규 촬영
뒤표지……산과 들을 푸른 락원으로!……………림 영환 그림

1956년 3월 5일 인쇄 조선 민주 청년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잡지
1956년 3월 10일 발행 《소년단》 1956년 제3호 (78호)
발행소 민 주 청 년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40046 값 25원 52,000부 발행